

지성 사라지고 취업 올인...컴퍼니 된 캠퍼스

<company>

<campus>



위기의 지역대학

<2> '인력 공장' 전략

**신입생 대상 취업강좌 수두룩
교수 평가지표에 취업률 반영
정부 재정지원 무기 대학 압박
특성화는 커녕 정체성 잃어가**

♣ 호남대는 올 해부터 재학생들의 '비교 활동 증명서'를 발행해준다. 학생이 학교 공부 이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학교가 인증한다는 것으로, 증명서에는 토익 성적과 자격증 취득 여부를 비롯해 국토 순례 활동, 마라톤 10km 완주, 교환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등이 기록된다. 구직에 나선 학생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 동신대 군사학과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오전 7시부터 기상, 학생별

맞춤식 수업을 받아야 한다. 교수들이 책임지고 수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학년 남학생 25명 전원이 군 장학생(육군 21명, 해병대 4명) 선발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들에게 학기당 3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4년 동안 지급된다. 4년 동안 '공짜'로 다니는 셈인데, 전년도 합격률도 9%에 달했다. 대학의 자율성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감사 따지지 선불할 정도다.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으로, 교수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 전락했다.'

이도훈 한양대 교수가 최근 '지구화시대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식생산의 문제와 지식인 운동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진단한 대학의 현주소다.

이 교수는 "대학생들은 연애에 결흔마저 포기한 채 '나만의 취업과 행복'을 위해 정춘을 '몰빵'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취업과 관련된 거나 재미와 욕망에 충실한 강연에 몰리면서 전적으로 전락하거나 잡다한 삶을 추구하는 강의는 속속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지성의 집합소'라는 대학이 '취업사관 학교', '기능인 양성소'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 증대와 비정규직 양산의 상황에서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대학 최우선의 과제가 됐고 캠퍼스가 컴퍼니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대학 대부분이 취업 우선주의를 내걸고 재학생 뿐 아니라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강좌만 수십여개를 만들고 토익·자격증 응시료에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지원, 교직원 멘토링 등 '알다퉁' 내놓고 있다.

대학마다 전 과목을 대상으로 취업 전담 교수를 위촉하는 가 하면, 졸업·취업 후 사 회생활까지 맡아 지도하는 '평생지도교수제'를 도입하고 취업률을 교수 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대학이 안팎에서는 취업률을 대학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가 한몫을 했지만 '재정지원사업'을 무기로 취업률을 평가 지표에 반영, 대학을 평가하는 정부 방침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역 대학의 경우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취업률 지표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서 지역 조건과 상황에 맞게 특성화하기는 커녕,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와 정원을 개편하는 대학에 거액의 '당근'을 주는 프 라임 사업도 무관하지 않다. 가뜰이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실탄'을 연간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 대학들은 '올인'했다.

조선대는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 300명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가 정부의 '프라임' 사업에서 떨어지자 곧바로 철화, 장기적 안목이 아닌 '근시안적' 정책으로 학내 갈등만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희중 서울대 수리과학과 교수는 학술 단체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이공계 현실과 지식 생산 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대학은 당장의 취업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담당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며 "장기적 안목으로 창의성이나 인성과 같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대 주부 잔혹 살해범은 가출 청소년

택배원 가장 침입...부산서 검거

가장과 두 딸이 아파트를 빠져 나간 것을 지켜본 뒤 택배원을 가장해 침입,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반 밀항을 위해 부산으로 도피한 용의자가 검거 당시 가방에 흉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미러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을 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4층 집에서 A(여·50)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전남지역 고등학교 2학년 최모(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군이 가출 당시부터 가방에 흉기를 다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저지르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낮 12시20분 사이 흉기를 이용해 집에

홀로 있던 A씨의 목 등을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노트북, 신용카드,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다. 최군은 이 아파트 옥상에서 밤을 보낸 뒤 A씨 가족이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택배원을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곧바로 품고 있던 흉기로 A씨를 공격했다.

우울증 치료경력이 있는 최군은 사건 전날인 27일 밤 거주지인 영암에서 가족에 의해 가출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를 빠져나간 직후 부산으로 이동한 최군을 추적,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부산역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최군의 가방에는 흉기 세 자루, 팬지 한 개 등이 담겨 있었다.

가출한 최군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대담성·잔혹성 등이 여천이 않다고 판단, 여죄 추궁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오늘 소환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이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

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달 1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씨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새누리 전남도당 위원장

공사수주 방해 혐의 입건

김중대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대기업 공사수주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여수경찰은 29일 대기업에 특정인의 공사수주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로 김 위원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여수산단의 모 대기업 등 2개 업체 임원을 전

남도당 사무실로 불러 새누리당에서 협조를 요청하며 '사회 약질범범자 공사 입찰 및 하도급 참여 금지 간'이란 제목의 문서를 전달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사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새누리당 이름으로 전달한 공문에는 'A씨가 18대 대선 당시 대선자금 일부를 횡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A씨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지 등을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링 밖에서 강권치 맞았다"...복싱연맹 간부 고소



○...광주복싱연맹 간부가 복싱 경기장에서 같은 연맹 소속의 다른

간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복싱연맹 이사 임모(60)씨는 전날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경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 복싱 경기장에서 광주복싱연맹 상임부회장

김모(75)씨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건어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당시 영주체육관에서는 전국체전 광주지역 복싱 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고소인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부회장이 내게 다가오더니 '경찰이 수사하는 연맹 비리 사건을 내가 제보한 것인 줄다 안

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렸다"고 처벌을 요구.

/김형호기자 khh@

전남대·조선대 총장 선거 갈등 심각

전남대 교수들 직선제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조선대 민주동우회 이사회 총사퇴 촉구 농성

전남대·조선대가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조선대는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 방식에 반발, 구성원들이 전막 농성에 들어가 선거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는 총장 직선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조선대 민주동우회는 29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법인 이사회의 총장선출에 관한 결정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전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동우회는 "이사회는 총장 선출 방안에 관한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구성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선대 이사회는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교수평의회·대자협(대학지치운영협의회) 등의 요구(전임교원 75%·직원 18%·학생 7%·동문 3%)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전임교원의 경우 70%로 정하고 직원(18%)·학생(9%)·동문(3%) 등이 30%를 채우는 방안을 확정된 바 있다.

교수평의회도 전날 열린 대의원회에서 선거 절차 불참을 결정하는 한편,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는 30일부터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원들이 2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 이사회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장 직선제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

대학 내 심의기구인 평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장의 (교수회의 직선제 결정에 대한) 재논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직선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회는 "총장이 직선제를 위한 학칙 개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내세운 이유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대학 민주화를 앞장서서 희생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에 승리하는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h3>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h3>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h3> <p>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5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p> <p>★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60만!!</p> <p>▣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p> <p>010-6670-9800</p>	<h3>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h3> <p>(소액투자 안정된 월세 노후대비하세요!!)</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4천만</p> <p>▣ 서구 쌍중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온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매가 3천 5백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A.P.T →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8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7384-7800</p>	<h3>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h3> <p>▣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감평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p> <p>▣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흥사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감평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p> <p>▣ 동구 금남로 5가 (3층상가건물) → 토 171평, 건 250평 (6차선 도로점) → 1층~3층 (상가및사무실) → 주차면, 금남로 47, 57억 2분거리 ▣ 감평가 2억 → 최저가 2억</p> <p>▣ 서구 세하동 (주택) → 토지 76평, 건물 50평 → 이면 코너, 2차선 도로 점 → 주민센터, 우체국 1분 ▣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1억3천</p> <p>▣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92평, 건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 함 → 전 요양병원 운영 ▣ 감평가 48억 → 최저가 22억</p> <p>▣ 북구 풍향동 (원룸) → 토 59평, 건 109평 (용 12개) → 광주교육대 1분거리, 코너자리 ▣ 감평가 3억 → 최저가 3억</p> <p>▣ 북구 용봉동 (다가구 원룸) → 토지 47평, 건물 80평 → 1층~3층 (용 12개) → 월수익 500만 예상 ▣ 감평가 2억6천 → 최저가 1억9천</p> <p>▣ 북구 두암동 (다가구 원룸) → 토지 54평, 건물 96평 → 1층~3층 (빌라용 3개) 각 화장실 방 3개씩 → 문화초등학교 2분, 월수익 200만 예상 ▣ 감평가 2억6천 → 최저가 2억6천</p> <p>▣ 남구 월산동 (다가구원룸) → 토지 74평, 건 132평 → 1층~3층 (용 18개) → 코너자리, 월수익 540만 예상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p> <p>▣ 북구 오치동 (다가구 원룸) → 토지 58평, 건물 104평 → 1층~3층 (용 13개) → 서신초등학교 1분 ▣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4천</p> <p>▣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 43평, 건 150평 → 1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예상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4천</p> <p>▣ 북구 우산동 (숙박시설) → 토 64평, 건 207평 → 1층~4층 (모텔 룸) → 서방사거리, 이면 도로 ▣ 감평가 4억8천 → 최저가 3억3천</p> <p>▣ 북구 신안동 (숙박시설) → 토지 363평, 건 309평 → 1층~5층 (총 룸 32개) → 코너자리, 월수익 900만 예상 ▣ 감평가 10억 → 최저가 5억5천</p> <p>▣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지 174평, 건물 424평 → 1층 (상가 22) 2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예상 ▣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p> <p>▣ 서구 광천동 (다가구 원룸) → 토지 35평, 건물 108평 → 광천 터미널 5분 → 건물 대리석 깔음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p> <p>▣ 매주 수요일 (오전)</p> <p>▣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p> <p>☆ 경매 실전 교육 ☆</p> <p>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p> <p>(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p> <p>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p> <p>010-6832-9700</p>
--	--	--	--